

## ‘딤치’와 ‘디히’

---

이기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1.

김치를 가리킨 옛말에 관하여 내가 처음 글을 쓴 것은 1988년이였다. 한 회사의 社報에 실린 짧은 글이었지만 「杜詩諺解」(3,50)의 ‘디히[菹]’까지 들어서 논하였다. 이 글은 李春寧(1990)에 全文이 인용되다시피 하였다. 그 뒤에 이보다 조금 체계를 세워 쓴 일이 있다. Bruno Lewin교수를 위한 기념 논문집(1992)에 실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읽어 본 사람이 매우 적을 것으로 짐작된다. 「國語 語彙史 研究」(1991)의 간행에 즈음하여 쓴 글(第1章, “國語 語彙史의 構想”)에서도 짚막하게 言及한 것이 있는데 위의 글들에 대한 하나의 自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딤치, 김치’와 ‘디히, 지’와의 관련에서 새로 발견한 사실들도 있고 해서 짧게나마 다시 쓸 필요를 느껴왔다. 이 기회에 미진했던 논의도 보충하기로 한다.

### 2.

‘딤치’는 16세기 문헌에 보인다. 그런데 이보다 조금 뒤에 ‘딤치’도 보인다.

“菹 菹치조 醃菜爲菹 亦作菹”(『訓蒙字會』初刊 中11), “菹 菹치져”(『新增類合』上 30), ‘菹치(菹)’(『小學諺解』1.7)참고. 한편 ‘沈菜’라는 漢字 표기가 확인된다. 이르게는 ‘內訓’(3.3)에 漢文의 ‘菹’를 ‘沈뎨菜칭’라 언해한 것에서 비롯하여 近世의 여러 문헌을 거쳐 19세기말의 『國漢會語』(1895)의 “침채 沈菜”에 이르기까지 이 표기의 전통이 이어졌음을 본다. 서양 사람들이 편찬한 『韓佛字典』(1880)과 『韓英字典』(1896)에는 표제어로 ‘김치’와 ‘침치’가 아울러 실려 있는데 두 군데 다 ‘沈菜’를 표기한 것은 특기할 만한 사실이라 하겠다.

여기서 ‘菹치’와 ‘菹치’의 관계가 새삼스럽게 문제로 제기된다. ‘沈’의 우리나라 字음이 ‘팀’이었으므로(『新增類合』下62, 『石峯千字文』31) ‘菹치’가 ‘沈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 ‘菹치’는 무엇인가. 나는 지금까지 ‘菹’는 ‘팀’보다 이른 ‘沈’의 字音이라는 생각을 가져왔다. 그런데 李得春(1994)은 이것을 ‘菹치’(白菜), ‘빙자’(餅鱈)와 함께 근세중국어 차용어의 예로 꼽았다.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필시 ‘沈’의 字音が ‘팀’ 아닌 사실에서 이런 推斷을 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근세중국어 차용이라는 추단의 정당성은 두 가지 사실의 확인에 의해서만 증명될 수 있다. 첫째는 ‘沈菜’란 단어가 근세중국어에 있었음이 밝혀져야 한다. 둘째는 그 발음이 근세 中國音과 서로 비슷해야 한다. 가령 ‘菹치’의 예를 들면 ‘白菜’가 근세중국어에 있었음이 쉽게 드러나며 ‘白’의 근세음이 bái(『四聲通解』下59 ‘뵤’)여서 ‘菹치’가 차용어임이 확인되는 것이다. 그런데 ‘沈菜’의 경우는 근세 중국어에 이 단어가 있었음을 확인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沈’의 근세음이 chén(『四聲通解』下73 ‘침’)이어서 ‘菹’과는 큰 차이가 있어 ‘菹치’가 근세중국어 차용어일 가능성은 부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서, 눈을 돌려, ‘沈’의 우리나라 옛 字音으로 ‘팀’ 아닌 ‘담’이 과연 있을 수 있었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漢字音 研究는 有氣音 문제가 그리 단순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後代에 有氣音으로 발음되는 頭音이 예전에는 平音이었음을 보여주는 예들이 뜻밖에 많음을 발견하고 놀라게 된다. 이런 예들은 종래 한자음 연구에서 자주 인용된 자료들(『訓蒙字會』 등)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일반 자료(諺解 등)에서 매우 흥미 깊은 예들을 발견하게 된다.

‘皮’의 예를 들어 보면 『訓蒙字會』를 비롯한 여러 한자음 자료에 ‘피’로 나타난다. 그러나 ‘비봉’, ‘녹비’ 등의 ‘비’가 우리의 주의를 끈다. 『漢清文鑑』(4.10)에

“卷面 비봉 bukdarun i talgari”라 있는데 이 ‘비봉’은 ‘皮封’임에 틀림없다. 한편 ‘鹿皮’의 발음은 ‘늑비’였다. 『雅言覺非』는 “鹿皮曰鹿比”라 하고 “皮比聲近 故虎皮古稱臯比”라 하여 ‘늑비’를 확인해 줄뿐 아니라 ‘虎皮’에서도 ‘비’라 하였음을 알려 준다. ‘虎皮’를 ‘臯比’라 했음은 『全韻玉篇』(下 6)에도 기록되어 있는바, 과연 ‘고비’라 했는지 단정은 삼가기로 한다. (‘臯’의 字音에는 ‘호’도 있음) 한편 ‘늑비에 갈알자’란 속담에도 옛 발음이 보존되어 있다. 오늘날 국어 사전들이 ‘늑피’(鹿皮)를 ‘늑비’의 본딤말(원말)이라고 한 것은 본말을 전도한 것이다.

여기서 ‘彼’의 字音에 생각이 미치게 된다. 『訓蒙字會』를 비롯한 한자음 자료 들은 한결같이 ‘피’를 보여주지만, 옛날에 ‘비’가 있었던 흔적이 역력함을 놓칠 수 없다. 그것은 『杜詩諺解』(7.25, 17.13, 24.16)에 보이는 ‘:비편[敵]이다. 『杜詩諺解』(25.39)에 나오는 ‘:피편[敵]에 비추어 이것이 한자어 ‘彼便’에서 왔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다음에 ‘瀑’字를 들어 본다. 이 字音이 예전에는 ‘복’이었던 증거가 남아 있다. 『月印釋譜』(11.53)에 두 번이나 기록된 ‘복포[瀑]가 그것이다.

‘幅’의 현대음은 ‘폭’이지만 『訓蒙字會』(初刊 中9, 改刊 中17)의 “幅 호복 복”, 『新增類合』(上 31)의 “幅 횡던 복, 비너비 복”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 字音은 근대 국어에서도 ‘복’이었다. 『東國新續三綱行實』(烈女 5.46), 『同文類解』(下 25) 등 참고. 『倭語類解』(上 46)와 『字類註釋』(上 83)에 “幅 폭복”이라 있음은 흥미롭다. 우리 국어에서는 이미 ‘폭’이라 발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너무 길어진 듯하여 예를 들기를 이만 그치기로 하지만, 위의 논의로도 ‘沈’의 우리나라 옛 字音이 ‘딤’이었다는 주장이 큰 역지가 아님이 밝혀진 것으로 믿는다. 다만 ‘딤’(沈)의 예를 달리 찾을 수 없음이 아쉽게 느껴진다.

여기서 ‘딤치’와 ‘딤치’가 兩立하여 온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 둔다. ‘딤치’는 한자어 ‘沈菜’와 밀접히 연결되어 ‘침치’(『同文類解』上 4, 『漢清文鑑』12.41 등)로 이어졌으나 ‘딤치’는 그렇지 못하여 ‘짐치’(『痘瘡經驗方』13)를 거쳐 마침내 ‘김치’김척’에 도달한 것이다. 현대에 와서 ‘김치’가 일반화되었으나 ‘침채’는 지금도 祭祀用語로 쓰이고 있다.

## 3.

김치에 관한 내 연구의 시초는 『杜詩諺解』(3.50)의 “겨슌 디히”[冬菹]와의 만남이었다. 여기서 분명히 漢文의 ‘飜’을 ‘디히’라 번역한 점이 내 눈을 번쩍 뜨게 하였던 것이다. 이것을 보기 전에도 ‘디히’의 존재는 『飜譯朴通事』(上 55)의 ‘장앳디히’[醬瓜兒]를 통하여 알려져 있었다. 이것은 ‘장’(醬)과 처격조사 ‘애’, 사이시옷, 그리고 ‘디히’의 합성이었다. 이 단어가 ‘장앳디히’(『同文類解』 下4), ‘장앳지이’(『漢清文鑑』 12.41)를 거쳐 현대국어의 ‘장아찌’에 이르렀음을 깨닫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劉昌惇(1971)은 ‘장앳디히’, ‘장앳디히’를 최초로 거론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장애, 장아”를 “장과)장와”(醬瓜)와 결부시킨 것은 잘못이었으나 ‘디히’를 ‘지’(간에 저린 채소)로 본 것은 그때로서는 매우 날카로운 慧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디히’에 대하여 거듭 논할 필요를 느낀다. 내가 ‘디히’를 김치를 가리킨 옛 단어로 보아야 함을 주장한 뒤에 나온 사전들(한글학회 1992, 南廣祐 1997)이 여전히 ‘디히’를 ‘지, 찐지’로 풀이하고 있음이 마음에 걸리기도 하여 내 주장을 다시 한번 밝히려는 것이다.

‘디히’가 김치를 가리켰음을 내가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의 셋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위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杜詩諺解』에서 ‘디히’는 漢文의 ‘菹’의 번역으로 사용되었다. 이 ‘菹’는 바로 『訓蒙字會』와 『新增類合』에서 ‘딤치’란 새 김을 가지고 나타나므로, 이것만으로도 ‘디히’와 ‘딤치’의 同一性이 증명된다. 둘째, 현대 서울말에서는 ‘지’가 ‘찐지, 오이지, 석박지’ 등에 쓰일 뿐 독립해서 쓰이는 일이 없지만, 전라 방언에서는 ‘지’가 김치를 가리키는 단어로 쓰이고 있다. 경상 방언에도 ‘지’가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다는 보고가 있다. 이것은 ‘디히’의 옛 용법이 연면히 이어진 매우 소중한 예들이다. 셋째, 평안 방언에서는 일반적으로 ‘찐디’가 김치를 가리킨다. 구개음화를 겪지 않은 이 방언에서 ‘디히’가 ‘디’로 나타남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인바, 이 ‘찐디’는 ‘디히’의 옛 의미를 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보면, 전라 방언에서도 김치를 ‘지’와 함께 ‘찐지’라 함을 들을 수 있으며 황해, 함경, 강원 방언들에서도 ‘김치, 짐치’ 대신에 ‘찐지’가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마도 ‘디히’ 앞에 수식어 ‘찐’을 붙인 말이 일찍부터 있어서 이것이 김치를 가리킨 말로 널리 쓰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상상

을 해 볼 수 있다.

정작 '디히'의 語源이 의문으로 남아 있다. 과거에 현대국어의 '지'에 대하여 중국어의 '漬', '蒞', '齋' 등과 관련 지어 보려는 試圖가 있었음을 알고 있다. 참고로 B. Karlgren(1964)이 再構한 上古音과 中古音은 다음과 같다.

漬 \*dz'jĕg/dz'isĕ

蒞 \*tsjo/tsjwo

齋 \*tsiər/tsiei

이들의 語頭音은 중세국어의 '디히'와는 아주 다름을 볼 수 있다.

이 一例는 역사적 연구에 있어 중세국어의 어형 없이 현대국어의 어형에만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을 안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좋은 교훈을 준다. 그런데 고대국어 자료의 빈곤으로, 중세국어의 어형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만으로 아무 거리낌없이 어원을 논하는 것 역시 이에 못 지않은 큰 위험을 안고 있음에 생각이 미칠 때, 우리의 연구가 모두 허망한 듯한 절망감에 빠지게 된다.

#### 4.

김치라고 하면 으레 배추, 무, 고추로 만든 것을 생각하기 쉽지만 15세기의 '디히'나 16세기의 '딤치'는 이와는 아주 달랐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 잡지의 지난 호(8권 4호)에 썼지만, 15·16세기에는 고추가 없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배추의 역사도 그리 길지 않다. 『訓蒙字會』(初刊 上7, 改刊 上14)에 '菘 비치송 俗呼白菜'에 있고, 더 거슬러 올라가, 13세기 중엽의 『鄉藥救急方』(方中鄉藥目)에 '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는데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면 이것은 순무와 비슷한 것이었으리라고 한다(李春寧 1990 참고). 오늘날 보는 것과 같은 결구(結球) 배추의 출현이 200년 전이라는 추정(조백현 1938)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해도, 17세기와 18세기 어름이라고 볼 때, 아마도 이 때쯤 고추와 결구 배추의 재배가 널리 퍼지게 되었으며 이 둘의 결합이 김치라는 걸작품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닌가 한다. 우리나라 김치의 역사에 하나의 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무도 그렇지만 배추와 고추는 모두 외국에서 들어온 것들이다. 오늘날 우리 민족 고유의 것으로 믿고 있는 김치가 그리 오래지 않은 과거에 외래의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라니, 참으로 흥미 깊은 사실이 아닐 수 없다.

## 5.

끝으로 지난 92년에 독일어로 쓴 글에서 『倭語類解』(上 47)의 다음 一項을 인용하여 간단히 논한 것이 있기에 여기에 덧붙여 둔다.

菹 톱치조 ○ 기미스이

여기에 나오는 일본어 단어 '기미스이'는 '김치'의 차용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이것은 김치의 명칭이 외국어에 차용된 가장 이른 예가 아닌가 한다. 그런데 이 '기미스이'의 흔적이 일본어에 보이지 않음이 마음에 걸린다. 나는 지금까지 이런 단어를 일본어 자료에서 본 일이 없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倭語類解』를 토대로 하여 일본에서 편찬한 『和語類解』와 『日語類解』의 두 책이다. 前者는 對馬島의 일본인 통역관의 손에 된 것인데 여기에는 '기미스이'가 그대로 보존되었으나, 金澤庄三郎의 손에 된 後者에는 '기미스이' 대신 '두게모노'(tsukemono)가 보인다(鄭光 1988 참조). 對馬島 方言에 '기미스이'가 있어 『倭語類解』의 편찬자들이 이 방언형을 채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 본다. 이 방언을 조사해 볼 필요를 느낀다.

오늘날 일본어에서는 kimuchi가 자리를 잡고 있다. 이것은 현대국어의 '김치'를 차용한 것으로 이미 일본어 사전들에 올라 있다. 첫번째 차용 '기미스이'는 부분적이었음에 대하여 이 두 번째 차용은 본격적인 점이 다르다고 하겠다. 영어에서도 kimchi(또는 kimchee)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보면 김치의 세계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 참 고 문 헌

- 南廣祐(1997). 『教學 古語辭典』. 教學社  
 劉昌惇(1971). 『語彙史 研究』. 宣明文化社  
 李基文(1988). "'김치'의 어원". 『三星 소식』 3월호.  
 —— (1991). 『國語 語彙史 研究』. 東亞出版社.  
 —— (1992). "Bemerkungen zu den koreanischen Wörtern für Kimchi".

*Bruno Lewin zu Ehren. Festschrift aus Anlass seines 65. Geburtstages. Band III. Bochum.*

李得春(1994). 『조선어 한자음 연구』. 서광학술자료사.

李春寧(1990). “김치의 歷史와 由來”. 구영조·최신량 편. 『김치의 科學技術』.  
韓國食品開發研究院.

鄭 光(1988). “諸本集成 倭語類解”. 太學社.

趙伯顯(1938). “菹菜考”. 『水原農學會報』

한글학회(1992). 『우리말 큰사전』 4.

B. Karlgren(1964). *Grammata Serica Recensa*. Stockholm.